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이 청소년 또래에 의한 정서폭력 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다중매개효과분석 -*

허인영

(우리가죽교육상담연구소)

[요약]

본 연구는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이 또래 친구들에 의한 정서폭력을 재경험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패널데이터(KCYPS) 중 중학교 2학년층을 대상으로 부모나 친구들의 신체폭력을 경험한 자를 제외하고 부모의 정서폭력이나 또래 친구들의 정서폭력만을 경험한 적이 있는 75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청소년의 우울은 또래 친구들에 의한 정서폭력을 경험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사회적 위축은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정서폭력과 또래 정서폭력 재피해의 관계에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이 또래 친구들의 정서폭력을 재경험하는 데 있어 우울과 사회적 위축과 같은 심리정서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천적 제언을 논하였다.

주제어 : 가정폭력, 정서폭력, 재피해, 우울, 사회적 위축, 다중매개효과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요약한 것임.

1. 서론

가족 관계에서 특히 부모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피해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에 의한 폭력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폭력행동의 범주 또한 매우 넓어서 직접적인 신체폭력과 성폭력 외에도 정서폭력과 방임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¹⁾ 그럼에도 가정폭력 연구자들에게 정서폭력은 폭력의 독립적인 형태로 인식되어 관심을 받지 시작한지는 오래 되었지만 신체폭력이나 성폭력에 비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졌다. 상대적으로 외관상 피해가 뚜렷하지 않아서 어디까지가 정서폭력인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얼마나 폭력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양적 측정도 어려웠기 때문이다(Smith, 2006).

정서폭력이란 신체폭력 외에 직접적인 언어폭력과 간접적인 상징적 폭력을 포함하여 자녀의 정서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가해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행위를 말한다(Vissing et al., 1991). 정서폭력의 영향은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 자녀의 문제행동과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Mullen et al., 1996), 정신건강과 학습장애(Eckenrode et al., 1995), 자살 시도(Johnson et al., 2002; Gladstone et al., 2004)와 성인기 범죄 및 반사회적 행동(Smith and Thornberry, 1995)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에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서폭력은 다른 유형의 폭력들보다 피해자의 우울(e.g. Alloy et al., 2001; Gibb and Abela, 2008)과 사회적 위축(e.g. Kaufman and Cicchetti, 1989; Rubin and Coplan, 2004)과 같은 심리적인 기능과 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적인 폭력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정서나 감정이 수용받지 못하고 거절당함으로써 우울, 사회적 위축과 같은 심리 증상들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정서 변인들은 개인의 기질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조은정·이기학, 2004) 피해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변인이다. 실제로 부모의 정서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또래 친구들에 의한 폭력을 경험할 위험을 증가시킨다(e.g. Bolger and Patterson, 2001; Smith, 2006). 우울이 높을수록(e.g. 김명식, 2009; 신복기·이성진, 2012),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Nelson et al., 2005; Rubin et al., 2009) 또래 친구들의 관계에서 폭력을 더 경험한다.

그 동안 가정폭력 연구들은 어린 아동에 대하여 관심을 더 기울여 왔으나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직 책임감이나 도덕적 기준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해야 할 발달적 과제를 이루지 못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분노와 좌절을 학교와 사회 환경으로 돌리게 되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가출하고, 자살시도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McCloskey, 2011). 따라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의 영향을 확인하고 가정에서 경험하는 부모폭력이 또래

1)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01년 2,105건, 2005년 4,633건, 2013년은 6,796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3년 발생한 아동 학대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해자는 친부모(80%)였으며, 폭력유형별로는 정서폭력(37%), 신체폭력(31%), 방임(28%), 성폭력(4%)의 순서로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발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최근 연구들은 폭력경험이 심리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후 폭력의 재피해(revictimization)와도 관련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e.g. Coid et al., 2001; Gladston et al., 2004; Finkelhor et al., 2007). 예를 들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13세 이전의 경험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는 부모 간 폭력 목격을 포함하여 부모폭력의 여러 형태를 경험할수록 성인기 대인관계에서 폭력의 재피해가 유의미하게 높았다(Pereda and Gallardo, 2014). 또 Crawford와 Wright(2007)는 15세 이전에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을 경험하는 것이 성인기 데이트 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모두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폭력의 재피해에 대한 연구들은 폭력의 범주가 일관성이 없고 대부분 아동기와 성인기 경험의 연관성을 회고적으로 살피거나, 여성과 성폭력 경험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아서 연구결과를 통합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구의 대부분은 폭력의 유형에 상관없이 이전의 폭력피해 경험이 이후 경험하게 되는 폭력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 동안 청소년들의 폭력행동에 미치는 가정폭력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폭력경험들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은 제시하였지만 가정폭력 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후의 재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전의 가정폭력 경험이 이후 다시 폭력을 경험하는데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왔다(e.g. 이영선·이경님, 2004; 신복기·이성진, 2012; Gibb et al., 2004). 이는 역으로 폭력의 영향 외에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거나 혹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 즉 매개변인을 통해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한다(Baron and Kenny, 1986).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 경험이 심리 정서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이 청소년 또래관계에서 정서폭력을 다시 경험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가와 그러한 영향을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매개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정서폭력의 정의와 유형

정서폭력의 형태는 다양하며 폭력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그럼에도 정서폭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합의가 있지 않은 실정이다(Gibb et al., 2004; Crawford and Wright, 2007). 그에 따라 정서폭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통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왔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의로 Garbarino 외(1986)는 부모에 의해 자녀의 자아 발전과 사회적 기능이 위협받는 것이라고 정서폭력을 정의하고 그 하위유형으로 거절(rejecting), 고립(isolating),

위협(terrorizing), 무시(ignoring), 타락(corrupting)의 5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²⁾ Wiehe(1990)은 여기에 두 가지 행동, 즉 아동의 물건을 부수어 버리고, 애완동물을 괴롭히거나 없애 버리는 것을 추가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의 경우는 고성혜(1992)가 정서폭력이란 아동의 심리적 자아에 상처를 입히며 지속적으로 아동에게 해악을 끼치는 주양육자의 고질적인 행동 패턴으로 정의한 바 있다. 아동이 받는 상처가 분명하지 않아도 아동에게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예상되는 행동이 정서폭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잠재적인 손상까지 정서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허남순(1993)은 아동을 거부하거나 아동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 뿐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에 의한 폭력, 폭언 등 아동에게 정신적인 손상을 가하는 간접적인 폭력까지 정서폭력의 범주에 포함하고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서적 폭력에 대한 정의는 국내외 구분 없이 연구자에 따라 언어폭력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에서부터 폭력 목적, 방임과 같은 간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모욕적인 행동으로 아동이 받는 잠재적인 손상까지 넓은 범주를 정서폭력으로 제시하고 있어 아직까지 정서폭력에 대한 연구는 그 개념에 대한 실용적인 정의와 측정에 있어 도전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폭력의 독립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위범주와 측정의 문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폭력을 신체폭력 외에 직접적인 언어폭력과 간접적인 상징적 폭력을 포함하여 자녀의 정서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가해자에 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행위(Vissing et al., 1991)로 정의하고 Vissing 외(1991)의 구분에 따라 언어폭력과 비언어적 폭력 즉, 상징적 폭력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2) 폭력의 재피해

폭력의 피해경험은 하나의 단순 영역에 머물지 않고 여러 영역의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어떤 한 가지 범주의 피해만을 실험한 연구들의 결과는 아마도 측정되지 않은 다른 폭력의 결과일 수 있어 그 영향을 과대평가할 수 있으며, 피해 경험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상호관계를 사정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e.g. Desai et al., 2002; Outlaw et al., 2002; Ford et al., 2010).

이에 따라 최근 여러 형태의 폭력피해에 노출된 것을 동시에 실험하는 연구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다.³⁾ 관련 연구들은 폭력의 재피해에 대하여 같은 유형의 폭력을 반복하여 경험(repeat victimization)

2) 거절은 부모가 자녀의 가치나 욕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며, 고립은 정상적인 사회경험이나 교류를 방해하여 세상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다. 위협은 공포감을 주며 협박하는 것이며 무시는 자녀에게 필요한 자극이나 반응을 하지 않거나 정서적인 성장과 지적인 발달을 막는 행위이다. 타락은 아동에게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며 일탈을 강요하고 비정상적인 사회경험을 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3) 예를 들어 Finkelhor 외(2007)는 다중피해(polyvictimization)라고 명명하고 아동이 경험하는 여러 차원의 피해 즉, 일반적인 폭력 범죄와 경제 범죄, 신체폭력, 아동학대, 형제와 친구의 폭력, 성폭력, 폭력목적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Higgins와 McCabe(2000)는 복합적인 피해

하거나 두 개 이상 다른 유형의 폭력을 중첩하여 경험(multiple victimization)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Outlaw et al., 2002) 아직은 재피해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에서 일관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구결과들은 피해자가 폭력의 경험에 있어 여러 범주에 노출되는 것은 공통적이며, 복잡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폭력의 단순 범주에 노출되는 것이나 경험하지 않는 것보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겪게 된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8세 이전에 신체폭력과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기에 같은 피해에서 더 높은 발생 비율을 보고하고 있으며(Tjaden and Thoennes, 2000), 폭력경험들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연합해서 친밀한 관계와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 모두 폭력경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Desai et al., 2002).

이에 대하여 Coid 외(2001)는 이전에 경험하는 폭력은 이후 경험하는 폭력의 선행사건이라기 보다는 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초기 스트레스로 넓게 정의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Cuevas 외(2010)는 재피해 경험에서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인구학적 변인과 이전의 피해경험을 통제한 후에도 폭력 피해경험에서 강력한 예측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피해로 인한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결과들이 이후의 재피해를 경험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취약성을 높인다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부모의 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다. Elliott 외(2009)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높은 수준으로 누적되는 피해경험이 학교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강력한 위험요인이라고 보고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반복적으로 피해경험에 노출되는 것이 폭력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중피해변인을 제외한 회귀분석 결과 누적적으로 경험한 다양한 피해 유형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유일하게 의미있는 변인은 부모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청소년들이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실제로 Finkelhor 외(2007)에 의하면 12-17세 이하의 2,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샘플에서 한 해 동안 4개 이상 다른 종류의 폭력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샘플의 22%에 달하였다.⁴⁾ 연구자는 이러한 청소년들은 높은 수준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피해자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미래의 피해에 취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 아동들은 다른 폭력피해에 더 높은 위험에 처하며,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만성적으로 매년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Hodges et al., 1997).

(multitype maltreatment)라고 명명하고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학대 유형을 경험하는 것 즉, 성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과 가정폭력 목격등 하나 이상의 폭력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Turner와 Lloyd(1995)는 누적된 불행(cumulative adversity)이라는 범주를 사용하여 누적되어 가는 트라우마 경험으로 설명하면서 평생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인 트라우마 사건으로 20개 항목을 제시하고 개인이 노출된 숫자를 측정하였다.

4) 어떤 피해경험이라도 있는 71%의 아동 중 69%가 최소한 한번 지난해 다른 피해유형을 경험하였다. 가장 공공연한 폭력의 피해 형태는 동료들과 형제들에 의한 폭력,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폭력을 목격, 정서적인 따돌림과 도둑질이었다. 4-6개 피해경험을 한 다중피해는 전체 샘플의 15%, 7개 이상의 높은 다중피해는 7%로 나타났다. Finkelhor 외(2007)는 피해의 경험을 신체폭력, 성폭력, 도둑질, 절도, 아동학대, 가족유기, 지역사회폭력, 형제나 동료폭력등 폭력피해의 개념을 상당히 넓게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의 영향과 학교폭력의 관계를 함께 다룬 연구들은 새로운 것은 아니며 상당한 연구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가정폭력을 배경적 요인으로 하여 학교 폭력과 상관관계를 밝히거나 인과 관계나 매개요인들을 살펴본 연구들은 사회학습이론의 프레임 안에서 학교폭력의 가해행동과의 연관성을 살핀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반복적으로 폭력피해를 경험하는 데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다음의 연구들이 유일한데, 윤명숙과 조혜정(2008)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대하여 집단을 비교한 결과 부모에 의한 폭력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중복해서 경험할수록 더 우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인선과 최지현(2014)은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부모폭력과 또래폭력의 중복피해 실태를 제시하고 중복피해를 경험할수록 심리적으로 부적응하고, 학교성적, 청소년의 성별, 부모의 방임적 태도가 중복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위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발달적 맥락에서 중복 피해의 영향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같은 피해를 반복하여 경험하는 재피해의 관점에서 정서폭력의 독립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력의 재피해(revictimization)를 같은 유형의 폭력을 반복하여 경험(repeat victimization)한다는 측면에 집중하여 정서폭력의 영향과 정서폭력의 재피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이 또래 친구들의 정서폭력을 재경험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정서적 변인이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재피해에 이르는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3) 정서폭력의 영향

(1) 정서폭력과 우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부적응은 우울로 알려져 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더 우울하고,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우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장덕희, 2004; Gibb et al., 2004). Hooven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16세 이전에 신체 폭력, 성폭력 그리고 정서폭력과 같은 외상(trauma)을 경험한 경우가 부모 갈등, 부모 사망, 부모 이혼, 부모의 정신병리와 같은 다른 부정적 생활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정서폭력의 경험이 이후의 성인기 우울과 신체폭력 또는 성폭력의 피해를 더 많이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는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부모의 신체폭력과 정서폭력이 모두 신체화 증상, 분노, 우울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신체폭력보다 정서폭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Briere and Runtz, 1988). 이처럼 정서폭력이 우울에 대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인지를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기상을 내면화하고, 인생 사건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울 증가의 위험요소가 된다(Crawford and Wright, 2007; Gibb et al., 2004).

한편 우울이 청소년의 적응, 특히 학교생활과 대인관계 적응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Marini 외(2006)는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우울의 수준이 가해자보다는 따돌림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을 더 예측하였다. Turner 외(2010)는 2-17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의 폭력의 피해자가 될 뿐 아니라 성폭력 등 다른 형태의 폭력에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우울은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폭력 경험을 더 유지하는 요인이 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해경험들 간의 관계를 우울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Greene과 Navarro(1998)는 여성과 성폭력 경험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우울 수준이 높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중단적 실험을 통해 이전의 피해 경험이 이후의 재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불안이 부분적인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복기와 이성진(2012)은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경로 분석한 결과 우울이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정폭력이 신체폭력과 정서폭력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정서폭력의 독립적인 영향은 확인 할 수 없지만 가정폭력 경험이 이후 학교 폭력의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변인이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부모의 정서폭력이 피해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높이고 우울은 다시 또래 친구들의 정서폭력의 재피해를 예측함으로써 두 피해 경험 사이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정서폭력과 사회적 위축

정서폭력과 우울의 관계에 비해 정서폭력과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이란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을 접했을 때 긴장하거나 움츠러드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다(Rubin et al., 2009). 정서폭력은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김혜인 외, 2012), 다른 사람과 갈등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려 친밀한 관계에서의 철회를 가져오기 때문에(Crawford and Wright, 2007)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은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방식이 부정적일수록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위축된다는 점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최혜선과 박성연(2008)은 어머니가 높은 수준으로 높은 통제와 간섭을 할 때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더 위축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Kaufman과 Cicchetti(1989)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에 높은 수준의 학대가 동반될 때 자녀들의 위축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특히 부모의 언어폭력은 피해자녀를 수동적이며 위축되도록 하고, 또래 친구들을 사귀는 데 어려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은 친구들이 싫어하고, 보복하지 않으며 수동적으로 회피하는 대처전략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격적인 아이들의 쉬운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또래들보다 친구들에 의한 폭력을 더 경험한다(Rubin et al., 2009). Schwartz 외(1993) 또한 또래 친구들의 만성적 피해와 강한 연관을 갖는 청소년의 행동패턴은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였다.

폭력의 재피해 경험에 미치는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비해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조은정과 이기학(2004)은 정서폭력의 영향에 대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모의 정서폭력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사회적 위

측이 높을수록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을 더 유지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Bolger와 Patterson(2001)은 부모의 만성적 학대와 또래 친구들의 거절 사이의 관계에서 피해아동의 공격적 행동은 매개효과가 있지만 사회적 위축행동은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부모의 높은 수준의 통제와 간섭, 언어폭력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축된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에서 더 순종적이고 협동하지 못하며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제해결 기술이 낮는데(조은정·이기학, 2004), 이러한 행동패턴은 사회기술의 발달을 방해하여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친구들의 폭력을 더 경험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정서폭력이 또래 친구들에 의한 정서폭력의 재피해를 경험하는 데 있어 사회적 위축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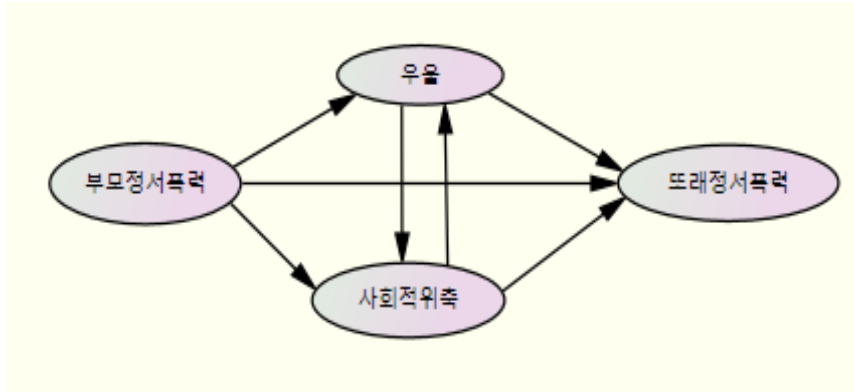
(3)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관계

폭력의 피해경험이 심리정서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 중에는 우울과 같은 내재화된 어려움이 발달해 가는 데 있어 사회적 위축의 결정적인 역할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있다. 중단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은 이후에 우울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덜 활동적인 사회적 삶을 살고 결혼이나 출산, 안정적인 경력을 가지는 것과 같은 인생기의 중요한 전환에서 지체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e.g. Rubin et al., 2009). Boivin 외(1995)는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사회적 위축은 외로움을 매개로 하여 우울과 또래 친구들의 폭력을 예측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위축은 동료 관계에서 거절이나 외로움을 가져오게 하여 우울 수준을 높인다. Rubin과 Mills(1988)는 초등학교 2,4,5학년 동안 사회적 위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자기인식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결과는 동료들의 거절과 관련이 있는데 조사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애리(2014)는 십대 초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모의 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위축이 매개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위축이 내부 지향적인 특징을 갖는 행동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자신감이 움츠러드는 행동이라고 볼 때, 특히 어린 아이들보다 청소년들이 사회적 위축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학교생활 부적응을 더 경험하기 때문에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 문제 외에도 교사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와 낮은 학업성취, 학업 중단 등의 문제를 더 경험한다(Rubin et al., 2009).

그러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기본적으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인 관계일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관계를 방해하고 그러한 결과가 외로움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봉주 외(2014)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단 분석한 결과 우울·불안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의 초기값은 낮았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불안은 사회적 위축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적 위축은 우울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울이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이 또래 친구들의 정서폭력을 경험하는 데 미치는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에서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미치는 상호적인 영향을 가정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에 근거한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개발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데이터 중 2차년도(중2)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중학생으로 한정하고, 본 연구의 관심변인이 모두 측정된 중1패널 2차년도(중2)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 2학년 패널자료 전체 2,351명중에서 부모나 또래 친구들의 정서 폭력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대상자는 전체 응답자 중 1,133명(48.2%)이었다. 정서폭력의 독립적인 영향을 실험하기 위하여 그 중 부모나 또래 친구들에 의한 신체폭력의 경험이 있는 381명을 제외하고 752명을 선발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정서폭력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총 4문항의 부모학대척도 중 정서폭력에 해당하는 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님이나 보호자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예: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은 언어폭력으로 개념화하고,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는 위협으로 개념화하여 상징적 폭력으로 구분

하였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에 응답한 사례를 정서폭력 경험자로 선별하였다. 부모의 정서폭력변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76으로 확인되었다.

(2) 또래 친구들의 정서폭력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친구들의 비행 피해경험에 대한 총 6개 문항 중 정서폭력에 해당하는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는 놀림으로, “집 단따돌림(왕따) 당하기”는 거절, “협박 당하기”는 위협으로 구분하였다. 피해정도(지난 1년 동안 경험한 횟수)를 합산하여 단일측정 항목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래 친구들의 정서폭력에 대한 측정은 관측변인들이 조형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모델 프로그램은 관측변인과 잠재변인간의 관계가 반영지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형지표를 사용할 경우 식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우종필, 2010) 합산하여 단일측정 항목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우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90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위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5개 문항의 사회적 위축척도를 사용하였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5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에는 SPSS 통계 프로그램 19.0과 AMOS 19.0을 사용하였다. 부모 정서폭력과 또래 정서폭력의 재피해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였다. 모수에 대한 추정에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의 값뿐만 아니라 CFI와 TLI, RMSEA 등 적합도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다중매개효과 유의성검증을 위해서 팬텀모형(phantom model)상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였다. 팬텀모형은 간접효과를 일종의 가상변인인 팬텀변수로 변환하여 하나의 단일계수로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또한 부트스트래핑은 반복표본추출(resampling)기법의 하나로서 매개효과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Sobel검증에 비해 정규성 가정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Shrout and Bolger, 2002).

4. 연구결과

1) 기술분석

(1) 연구대상자 특성 분석

본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752명중 남학생은 411명(54.7%), 여학생은 341명 (45.3%)이었다. 자료가 수집된 지역은 서울 및 6개 광역시가 308명 (41%), 나머지 기타 시도에서 476명(59%)이 수집되어 성별과 지역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부모학력은 아버지의 학력이 응답자의 거의 절반 정도(48.2%)가 대학졸업 이상에 해당하였고 고졸(39.9%), 중졸(3.7%)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학력은 절반 이상(53.0%)이 고등학교졸업의 학력에 해당하였고 그 다음 대졸이상(32.4%), 전문대졸(12.1%), 중졸(2.5%)순으로 확인되었다. 가구 연소득은 연구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가구(412명, 58.2%)가 연소득 4,8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구성은 90% 정도(643명, 89.3%)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주	하위범주	빈도	%
성별 (n=752)	남학생	411	54.7
	여학생	341	45.3
지역 (n=752)	서울 및 6개 광역시	308	41.0
	기타시도	476	59.0
아버지 학력 (n=676)	중졸	25	3.7
	고졸	270	39.9
	전문대졸	55	8.1
	대졸이상	326	48.2
어머니 학력 (n=670)	중졸	17	2.5
	고졸	355	53.0
	전문대졸	81	12.1
	대졸이상	217	32.4
가구연소득(만원) (n=703)	1,200이하	47	6.7
	2,400이하	76	10.8
	3,600이하	168	24.3
	4,800이상	412	58.2
가족구성 (n=720)	부모+자녀	643	89.3
	한부모+자녀	70	9.72
	조부모+자녀	7	0.97

(2) 기술분석과 상관관계분석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분석에 앞서 관측변인들에 대한 항목묶기(item parceling)를 실시하였다. 항목 묶기를 하면 구조방정식에서 요구하는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추정해야 할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커진다(배병렬, 2011). 다수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된 우울과 사회적 위축 두 변인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 :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에 대하여 특별한 요인구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적 일관성법에 따라 임의 배정하고 타당도를 저해하는 변수를 제거한 후 신뢰도를 확인하여 최종요인으로 사용하였다(배병렬, 2011). 부분합산한 각 항목의 내적 일관성이 .6이상이면 관측변인으로 사용 가능하다(배병렬, 2011). 항목 묶기 후 내적 일관성을 확인한 결과 우울 변인의 1요인(.82), 2요인(.77), 3요인(.81), 사회적 위축(.68)이 모두 기준을 만족하였다.

본 연구의 관측변인들에 대하여 왜도와 첨도를 1차 확인한 결과 또래정서폭력 변인에서 기준치를 넘어가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그(ln)값을 취한 후 재차 확인한 결과 관측변인이 모두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관측변인의 기술통계값은 <표 2>와 같다.

<표 2> 관측변인의 기술통계(n=752)

잠재변인	측정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정서폭력	위협	1.00	4.00	1.86	0.77	0.59	-0.13
	언어폭력	1.00	4.00	1.93	0.94	0.54	-0.89
우울	우울1	1.00	4.00	2.08	0.70	0.23	-0.32
	우울2	1.00	4.00	2.09	0.76	0.34	-0.32
	우울3	1.00	4.00	1.90	0.71	0.44	-0.24
사회적위축	위축1	1.00	4.00	2.17	0.93	0.32	-0.81
	위축2	1.00	4.00	2.21	0.89	0.27	-0.69
또래정서폭력	또래정서폭력	.00	10.3	1.18	2.56	1.85	1.80

그 다음 상관분석을 통해 관측변인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상관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부모 정서폭력과 매개변인인 우울($r = .13 \sim .26, p < .01$)과 사회적 위축($r = .10 \sim .13, p < .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래 정서폭력과 우울($r = .14 \sim .21, p < .01$), 사회적 위축($r = .10 \sim .12, p < .01$) 또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우울과 사회적 위축($r = .33 \sim .44, p < .01$)의 관계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 정서폭력과 또래 정서폭력 변인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관이 너무 높은 변인들을 분석하는 경우($r > .85$) 불완전한 해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확인 결과 모든 상관계수 절대값이 0.7보다 낮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문수백, 2009).

〈표 3〉 관측변인간 상관관계 분석(n=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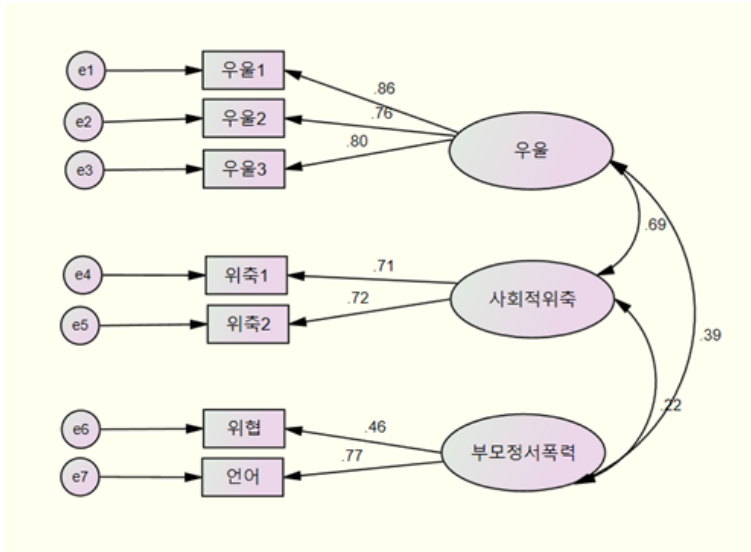
	1	2	3	4	5	6	7
1. 부모위협	1						
2. 부모언어	.36**	1					
3. 우울1	.15**	.26**	1				
4. 우울2	.13**	.22**	.66**	1			
5. 우울3	.17**	.26**	.68**	.61**	1		
6. 위축1	.13**	.12**	.44**	.33**	.38**	1	
7. 위축2	.10**	.10**	.43**	.37**	.40**	.51**	1
8. 또래정서폭력	.06	.07	.21**	.18**	.14**	.12**	.10**

**p<.01

2) 측정모형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2단계 검증법을 적용하였다. 측정모형을 분석한 후에 다음 단계로 구조모형을 분석하는 2단계 검증법은 모형이 부적합한 경우에 측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모형설정의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김계수, 2010).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인 부모 정서폭력, 우울, 사회적 위축의 각 지표들이 이론적으로 잠재변인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적 요인분석(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또래 친구들의 정서폭력 경험은 단일측정지표로 잠재변인을 구성하였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측정모형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13.98(df=11, p=.234>.05)$, TLI = .996, CFI = .998, RMSEA = .019로 확인되어 본 측정모형이 비교적 자료를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chi^2=13.98(df=11)$, $p=.234$, $TLI=.996$, $CFI=.998$, $RMSEA=.019$

〈그림 2〉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잠재변인과 관측변인들 간의 경로별 표준화계수값이 .46~.86($p<.001$)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준화 계수값이 .5이상 이어서 잠재변인을 반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김계수, 2010). 다음은 각 잠재변인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 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를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개념신뢰도 0.7이상, 분산추출지수가 0.5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김계수, 2010).

〈표 4〉 측정모형 분석 결과

잠재변인	측정변인	Estimate		S.E.	C.R.	CR	AVE
		B	β				
우울	우울1	1.058	.859	.046	23.209***	0.913	0.769
	우울2	1.025	.761	.049	21.128***		
	우울3	1.000	.797				
사회적위축	위축1	1.021	.707	.081	12.610***	0.714	0.559
	위축2	1.000	.724				
부모정서폭력	위협	.489	.465	.101	4.821***	0.655	0.499
	언어	1.000	.774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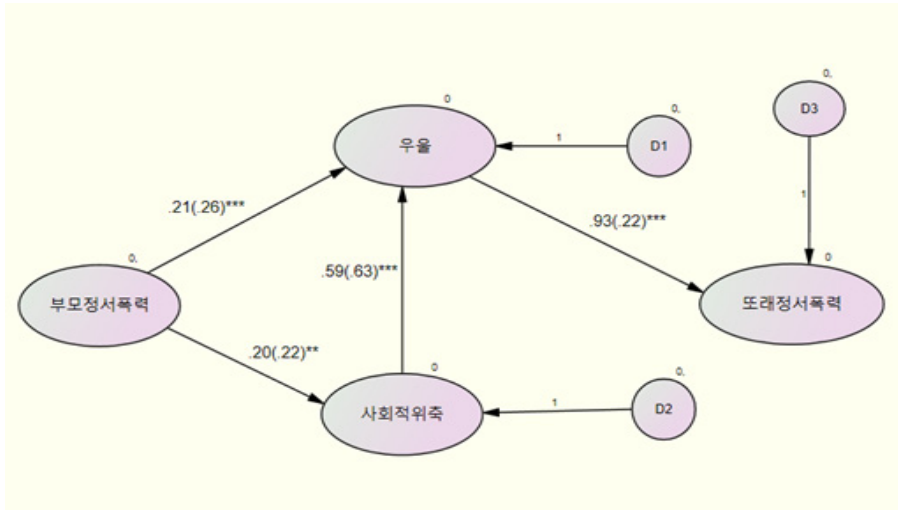
3) 구조모형분석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이 또래 친구들에 의한 정서폭력을 경험하는데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 분석결과 부모 정서폭력이 또래 정서폭력에 이르는 경로와 사회적 위축이 또래 정서폭력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이를 제거한 모형으로 최종모형⁵⁾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과 최종모형은 내재된 모델(nested model)이므로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고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두 모형은 같은 모형으로 볼 수 있지만⁶⁾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향상되었고 더 간명한 모형이기 때문에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과 경로계수값은 <그림 3>과 함께 <표 5>에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의 변인간의 경로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 경험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표준화계수값은 .211 ($p < .00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 경험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 경험은 사회적 위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표준화계수값은 .195($p < .0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 경험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의 수준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위축은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표준화계수값은 .591($p < .001$)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넷째, 우울은 또래 친구들에 의한 정서폭력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표준화계수값은 .934 ($p < .001$)로 유의하였다. 이는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 친구들에 의한 정서폭력 경험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5) 연구모형은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한 두 개의 경쟁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우울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한 모형은 사회적 위축이 또래 정서폭력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최종모형에서 제외되었다.

6) 연구모형의 경우 $\chi^2=18.811$ ($df=15$), $p = .222$, TLI = .996, CFI = .998, RMSEA = .018이었고, 최종모형은 $\chi^2=18.823$ ($df=17$), $p = .339$, TLI = .998, CFI = .999, RMSEA = .012로 확인되어 두 모형 모두 적합도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경험적 자료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모형과 최종모형의 $\Delta\chi^2$ 값을 보면 .012로 자유도의 차이가 2일 때 χ^2 값의 임계치 5.99보다 작아 두 모형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8.823(df=17)$, $p= .339$, $TLI= .998$, $CFI= .999$, $RMSEA = .012$
 *** $p<.001$, ** $p<.01$, ()안은 표준화계수를 표시

<그림 3> 최종모형

<표 5> 최종모형 분석 결과

경로	Estimate		S.E.	C.R.
	B	β		
부모정서폭력 → 우울	.211	.255	.052	4.012***
부모정서폭력 → 사회적위축	.195	.221	.059	3.277**
사회적위축 → 우울	.591	.631	.052	11.392***
우울 → 또래정서폭력	.934	.219	.165	5.666***

*** $p<.001$, ** $p<.01$

4) 매개효과분석

(1) 전체 매개효과분석

최종모형의 전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최종모형에 대한 전체매개효과

경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Bias-corrected
부모정서폭력 → 또래정서폭력	.304	.000	.304	.049 ~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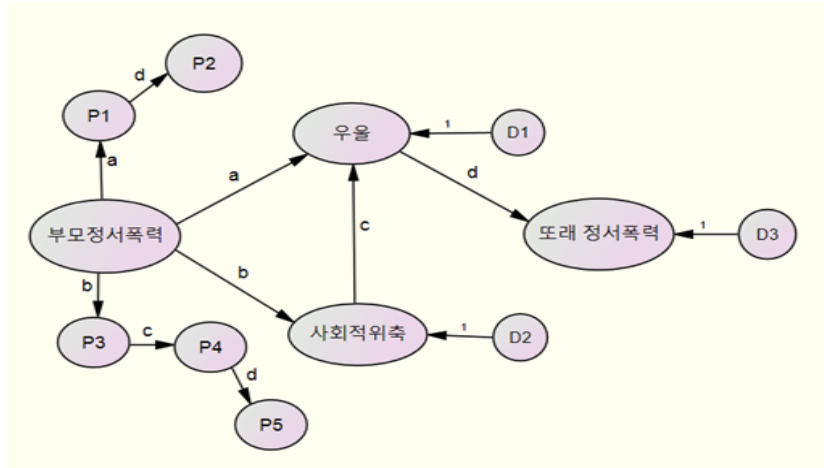
** $p<.01$

비표준화계수값을 확인한 결과, 총효과는 .304, 직접효과는 .000, 간접효과는 .304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하였다(BC=.049~.132, $p < .01$). 즉,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 경험이 또래 친구들에 의한 정서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사회적 위축 변인이 미치는 전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 개별 매개효과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두 개 이상의 매개변인이 다중 매개하는 경우, Amos통계 프로그램에서는 각각의 개별 특정 간접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중매개효과의 개별경로에 대한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확인하기 위해서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였다(배병렬, 2011). 본 연구 모형에서 개별효과를 확인해야 할 매개경로는 (a) 부모정서폭력→우울(P1)→또래정서폭력(P2)에 이르는 경로와 (b) 부모정서폭력→사회적위축(P3)→우울(P4)→또래정서폭력(P5)에 이르는 두 개의 경로이다. <그림 4>와 같다.

팬텀변환 모형의 적합도가 $\chi^2=18.823$ ($df=17$), $p = .339$, TLI = .998, CFI = .999, RMSEA = .012로 나타나 원모형 즉, 최종모형의 적합도와 같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팬텀 변수를 활용한 변환 모형은 통계적으로 원모형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모형에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개별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모형상에서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chi^2=18.823(df=17)$, $p = .339$, TLI = .998, CFI = .999, RMSEA = .012

<그림 4> 개별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팬텀 변환모형

〈표 7〉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경로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Bias-corrected
부모정서폭력	→ 또래정서폭력	.304	.000	.304	.049 ~ .132**
부모정서폭력	→ 우울 → 또래정서폭력			.197	.107 ~ .365**
부모정서폭력	→ 사회적 위축 → 우울 → 또래정서폭력			.107	.027 ~ .221**

**p<.01

먼저 '부모정서폭력 → 우울(P1)→ 또래정서폭력(P2)'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 추정값 (.197)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하게 나타나(BC = .107 ~ .365 p < .01) 부모의 정서적 폭력 경험이 또래의 정서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변인이 갖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두번째로 '부모정서폭력 → 사회적위축(P3)→ 우울(P4)→ 또래정서폭력(P5)'의 경로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매개효과 추정값(.107)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BC = .027 ~ .221, p < .01)하였다. 즉, 부모 정서폭력이 또래 정서폭력 재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5. 결 론

1) 요약과 논의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이 또래 친구들에 의한 정서폭력을 재경험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우울과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을 경험할수록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수준은 높아진다. 부모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위협과 같은 정서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자녀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표상을 갖도록 하여 이것이 우울의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Gibb et al., 2004). 그리고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거절당하는 것은 자녀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회피하게 만든다. 이는 다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대처방식과 사회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Rubin et al., 2009). 둘째, 우울은 또래 친구들에 의한 정서폭력을 경험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위축은 또래 친구들의 정서폭력을 경험하는 데 우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Marini 외(2006)는 우울이 청소년 또래 친구들에 의한 따돌림과 같은 피해에서 직접적인 영향요인이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확인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반면 사회적 위축의 경우는 또래 친구들에 의한 정서적 폭력을 경

힘하는 데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이 또래 폭력을 경험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했던 선행연구들(e.g. Bolger and Patterson, 2001)과는 다른 결과로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위축이 우울이라는 2차 변인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효과를 확인한 다른 연구들(e.g. 조은정·이기학, 2004)과도 차별화되는데, 이와 관련한 다른 가능성은 폭력의 정도에 따른 결과 차이일 수 있다. 즉, 폭력의 경험정도가 심한 집단의 경우 사회적 위축이 또래 폭력을 경험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경미한 집단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춘경과 조민규(2014)는 높은 수준의 폭력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사회적 위축이 학교 부적응을 의미있게 설명하였지만 낮은 수준의 폭력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 사회적 위축의 유의미한 영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임상 집단과 일반 집단에 대한 정밀한 실험을 통해 다시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 변인이 또래 정서폭력을 경험하는 데 우울을 매개로한 간접적인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또래와의 상호 작용이 부족하고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우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위축이 수줍어 하고 두려움이 많고 움츠러드는 행동이라고 볼 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특히 사회적 위축으로 인하여 교우관계나 교사관계, 학업성취 등 학교생활 부적응을 더 경험하기 때문에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 정서폭력이 또래 정서폭력의 재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먼저 부모의 정서폭력이 또래의 정서폭력을 재경험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검증하였다. 부모의 정서폭력을 경험할수록 우울의 수준은 높아지며 우울할수록 친구들에 의한 정서폭력을 더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을 경험할수록 피해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이는 다시 우울의 수준에 영향을 미쳐 또래 친구들에 의한 정서폭력을 재경험하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정서폭력이 또래에 의한 정서폭력을 재경험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우울과 사회적 위축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의 독립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특히 단일매개 변인을 설정하여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는 변수들의 관계를 다중매개 변인을 설정하여 검증함으로써 정서폭력의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폭력의 재피해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추가하였다. 그 동안 국내외 연구들은 폭력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심리정서적인 부적응과 학교생활 부적응 등에 주로 관심을 두어왔지만 그러한 부적응이 또 다시 폭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웠다. 폭력의 영향과 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 정서폭력이 또래 친구들의 정서폭력 재피해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확인한데 의의가 있다. 셋째, 정서

폭력의 피해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부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서폭력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우울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에 대하여 정서폭력 경험에 대하여 사정하고 정서폭력이 미치는 심리정서적인 영향에 대한 지원과 함께 폭력의 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이후 성인기 재피해에 있어서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의 재피해를 예방할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반복하거나 만성적인 폭력의 피해에서 높은 위험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둘 수 있다. 폭력의 경험과 함께 우울과 사회적 위축과 같은 정서적인 스트레스 증상을 가진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서폭력을 사용하는 부모나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른 형태의 폭력에 비해 정서폭력을 행사하는 부모와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정서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들은 아동발달에 대해 부족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제한적인 양육기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서폭력 가해자들은 스트레스와 정서폭력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보다는 정서폭력의 영향을 이해하고 가해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교육 프로그램이 적합할 수 있다. 부모에게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행동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폭력으로 인한 피해 자녀의 회복을 위해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가정에 대한 안전감과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청소년은 안전한 공간이 없는 만큼 학교에 기반한 정서폭력 예방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는 가해학생들의 폭력행동을 감소시키고 폭력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피해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학교에 기반한 개입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정서폭력의 영향과 결과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비폭력적 관계형성에 필요한 의사소통기술과 공감능력, 대인관계기술 및 갈등해결기술 등을 주요한 교육과정으로 통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osenbluth (2002)는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학교 기반 프로그램으로 '존중 기대하기'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십대들의 데이트 폭력과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상담, 지지그룹이나 교실에서의 학습방법과 교사에 대한 훈련의 내용을 참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 대한 이러한 폭력 예방교육은 정서폭력 뿐 아니라 이후의 성인기에 다시 경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 폭력들, 예를 들어 십대 데이트 폭력과 직장, 군대에서의 폭력, 성인기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연구한계와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은 일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울과 사회적 위축 혹은 정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실제 임상집단에서도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변인이 실험된 것은 중학교 2학년시기의 특정 발달기간 동안 사정된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폭력과 청소년의 또래 관계와 심리적 부적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아동이 성숙함에 따라 그들의 또래관계에 대한 특성과 폭력 경험에 대한 해석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모델이 보여주는 가설들과 관련한 실험들은 더 나이 어린 아동이나 더 나이 든 청소년들에게 실험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셋째, 종단적 연구와 질적 연구와 같은 다양한 연구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단일 시점의 횡단적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심리정서 변인과 또래폭력의 피해의 연관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폭력의 피해경험과 그로 인한 재피해에 대한 발달적 과정과 선행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종단적인 실험 설계가 더 적절할 것이다. 또 정서적 폭력의 비가시적이고 만성적인 특성상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지표로 포괄할 수 없는 영향들에 대하여 질적 연구 등을 통합한 방법론적 도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에 기초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가지 형태의 폭력을 반복하여 경험한 집단과 다양한 형태의 폭력경험을 복합적으로 경험한 집단은 심리적 영향과 재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집단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폭력이라는 하나의 유형에 대하여 반복하는 재피해의 경로에 집중하여 검증하였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재피해와 복합적인 피해의 차이에 유의하여 실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폭력의 재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정서요인, 사회문화요인등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서폭력과 재피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 중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라는 심리정서 변인과 관련한 모형을 실험하였다. 아직까지는 재피해와 관련한 개인특성, 가족과 학교 등 환경특성, 사회적 상호작용 등 재피해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구성할만한 구체적인 변인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특성상 통제변인을 투입하는데 따른 한계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신체폭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결과를 확인하기 용이한 반면 정서폭력은 폭력의 발생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정서폭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사정도구와 정서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정서폭력 행동을 선별하여 법적, 치료적 개입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에 기초한 후속연구를 통해 정서적 폭력을 포함한 폭력의 피해경험과 재피해 경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명식, 2009, "청소년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2): 53-67.
- 김춘경·조민규, 2014, "학대경험 수준에 따른 아동의 정서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0(4): 267-290.
- 김혜인·신민섭·김은정, 2012, "정서, 행동장애연구 :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

- 계: 정서 인식의 어려움과 정서 표현 역제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353-380.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애리, 2014, “지각된 방임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청소년복지연구』, 16(4): 397-416.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신복기·이성진, 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우울불안, 자살 간의 관계”, 『한국민족문화』, 44: 281-318.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의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윤명숙·조혜정, 2008, “청소년의 폭력경험유형이 우울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29: 295-329.
- 이봉주·민원홍·김정은, (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 이영선·이경님, 2004,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이 또래 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59-672.
- 이인선·최지현, 2014,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3), 259-281.
- 장덕희, 2004, “가정폭력 경험특성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부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1(3): 65-91.
- 조은정·이기학, 2004,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5(3): 583-595.
- 최혜선·박성연, 2008,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아동의 행동억제, 보육경험 및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행동의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6(4): 15-24.
- 허남순, 1993,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1(1): 23-45.
- Alloy, L. B., Abramson, L. Y., Tashman, N. A., Berrebbi, D. S., Hogan, M. E., Whitehouse, W. G., Crossfield, A. G., and Morocco, A., 2001, “Developmental origins of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parenting, cognitive, and inferential feedback styles of the parents of individuals at high and low cognitive risk for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4): 397-424.
- Baron, R. M., and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olger, K. E., and Patterson, C. J., 2001,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to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72(2): 549-568.
- Boivin, M., Hymel, S., and Bukowski, W. M., 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04): 765-785.
- Briere, J., and Runtz, M., 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and Neglect*, 12(3): 331-341.
- Coid, J., Petrukevitch, A., Feder, G., Chung, W.-S., Richardson, J., and Moorey, S., 2001, “Relation between childhood sexual and physical abuse and risk of revictimisation in women: A cross-sectional survey”, *The Lancet*, 358(9280): 450-454.

- Crawford, E., and Wright, M. O., 2007, "The impact of childhood psychological maltreatment on interpersonal schemas and subsequent experiences of relationship aggression", *Journal of Emotional Abuse*, 7(2): 93-116.
- Cuevas, C. A., Finkelhor, D., Clifford, C., Ormrod, R. K., and Turner, H. A., 2010, "Psychological distress as a risk factor for re-victimization in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34(4): 235-243.
- Desai, S., Arias, I., Thompson, M. P., and Basile, K. C., 2002, "Childhood victimization and subsequent adult revictimization assessed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women and men", *Violence and Victims*, 17(6): 639-653.
- Eckenrode, J., Rowe, E., Laird, M., and Brathwaite, J., 1995, "Mobility as a mediator of the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6(4): 1130-1142.
- Elliott, A. N., Alexander, A. A., Pierce, T. W., Aspelmeier, J. E., and Richmond, J. M., 2009, "Childhood victimization, poly-victimiz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in women", *Child Maltreatment*, 14(4): 330-343.
- Finkelhor, D., Ormrod, R. K., and Turner, H. A., 2007, "Poly-victimization: A neglected component in child victimization", *Child Abuse and Neglect*, 31(1): 7-26.
- Ford, J. D., Elhai, J. D., Connor, D. F., and Frueh, B. C., 2010, "Poly-victimization and risk of posttraumatic, depressive,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nd involvement in delinquency in a national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6(6): 545-552.
- Garbarino, J., Guttman, E., and Seeley, J. W., 1986, *The psychologically battered child*, San Francisco: Jossey-Bass.
- Gibb, B. E., and Abela, J. R., 2008, "Emotional abuse, verbal victim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negative inferential styles and depressive symptom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2(2): 161-176.
- Gibb, B. E., Abramson, L. Y., and Alloy, L. B., 2004, "Emotional maltreatment from parents, verbal peer victimization, and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1): 1-21.
- Gladstone, G. L., Parker, G. B., Mitchell, P. B., Malhi, G. S., Wilhelm, K., and Austin, M. P., 2004, "Implications of childhood trauma for depressed women: An analysis of pathways from childhood sexual abuse to deliberate self-harm and revictimiz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1(8): 1417-1425.
- Greene, D. M., and Navarro, R. L., 1998, "Situation-specific assertiveness in the epidemiology of sexual victimization among university women: A prospective path analysi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4): 589-604.
- Higgins, D. J., and McCabe, M. P., 2000, "Multi-type maltreatment and the long-term adjustment of adults", *Child Abuse Review*, 9(1): 6-18.
- Hodges, E. V. E., Malone, M. J., and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1032.
- Hooven, C., Nurius, P. S., Logan-Greene, P., and Thompson, E. A., 2012, "Childhood violence exposure: Cumulative and specific effects on adult mental health", *Journal of Family Violence*,

27(6): 511-522.

- Johnson, J. G., Cohen, P., Gould, M. S., Kasen, S., Brown, J., and Brook, J. S., 2002, "Childhood adversities, interpersonal difficulties, and risk for suicide attempts during late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ama Psychiatry*, 59(8): 741-749.
- Kaufman, J., and Cicchetti, D., 1989, "Effects of maltreatment on school-age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ssessments in a day-camp set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5(4): 516.
- Marini, Z. A., Dane, A. V., Bosacki, S. L., and Cura, Y., 2006, "Direct and indirect bully victims: differential psychosocial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involved in bullying and victimization", *Aggressive Behavior*, 32(6): 551-569.
- McCloskey, L. A., 2011, "The impac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adolescents", 225-246, in *How intimate partner violence affects children: Developmental research, case studies, and evidence-based intervention*, edited by McCloskey, Laura Ann Graham-Bermann, Sandra A. (Ed): Levendosky, Alytia A. (Ed),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ullen, P. E., Martin, J. L., Anderson, J. C., Romans, S. E., and Herbison, G. P., 1996, "The long-term impact of the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A community study", *Child Abuse and Neglect*, 20(1): 7-21.
- Nelson, L. J., Rubin, K. H., and Fox, N. A., 2005, "Social withdrawal, observed peer acceptance, and the development of self-perceptions in children ages 4 to 7 yea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0(2): 185-200.
- Outlaw, M., Ruback, B., and Britt, C., 2002, "Repeat and multiple victimizations: The role of individual and contextual factors". *Violence and Victims*, 17(2): 187-204.
- Pereda, N., and Gallardo-Pujol, D., 2014, "One hit makes the difference: The role of polyvictimization in childhood in lifetime revictimization on a southern european sample", *Violence and Victims*, 29(2): 217-231.
- Rosenbluth, B. (2002). "Expect Respect: A school-based program promoting safe and healthy relationships for youth", *National Resource Center on Domestic Violence*.
- Rubin, K. H., and Coplan R. J., 2004, "Paying attention to and not neglecting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isol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0(4): 506-534.
- Rubin, K. H., Coplan, R. J., and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
- Rubin, K. H., and Mills, R. S., 1988, "The many faces of social isolation in child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916.
- Schwartz, D., Dodge, K. A., and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6): 1755-1772.
- Shrout, P. E., and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mith, C., and Thornberry, T. P.,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olescent involvement in delinquency", *Criminology*, 33(4): 451-481.
- Smith, D. M.,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hildhood maltreatment and bullying",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Tjaden, P., and Thoennes, N., 2000. *Extent, nature, and consequenc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Vol. 181867),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Turner, H. A., Finkelhor, D., and Ormrod, R., 2010, "Child mental health problems as risk factors for victimization", *Child Maltreatment*, 15(2): 132-143.
- Turner, R. J., and Lloyd, D. A., 1995, "Lifetime traumas and mental health: The significance of cumulative advers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4): 360-376.
- Vissing, Y. M., Straus, M. A., Gelles, R. J., and Harrop, J. W., 1991, "Verbal aggression by parents and psychosocial problems of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15(3): 223-238.
- Wiehe, V. R., 1990, *Sibling abuse*,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Abstract

**The Effect of Emotional Maltreatment by Parents on Revictimization
of Emotional Maltreatment by Youth Peers
-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

Heo, In Yeong

(Woori Family Counseling Institute)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 of emotional maltreatment by parents on revictimization of emotional maltreatment by peers targeting second-year students of middle school with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s mediating variables. To this end, those who experienced physical violence by parents or friends were excepted from panel data collec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CYPIS) and data of 752 people who experienced emotional maltreatment by parents or peers were analyzed. Research hypotheses were verified by a utiliz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xperiencing emotional maltreatment by parents has a direct impact on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Second,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has a direct impact on experiencing emotional maltreatment by peers while social withdrawal is significant in an indirect path affecting with depression as a mediating variable. Third, the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were significant in the revictimization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maltreatment by parents and emotional maltreatment by peers. This means that emotional maltreatment by parents becomes a predictor in re-experiencing emotional maltreatment by peers. It also means that emotional maltreatment by parents has an indirect effect through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actors such as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rather than having a direct effe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Domestic Violence, Emotional Maltreatment, Revictimization,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Multiple Mediated Effects.

[논문 접수일 : 16. 12. 31, 심사일 : 17. 01. 12, 게재 확정일 : 17. 02. 13]